

광양시 ‘인구 30만 자족도시’ 기반 닦기 박차

농촌중심지 활성화·도시활력증진 사업 등 대대적 투자
성황근린공원 조성 등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시로

광양시가 인구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목표로 도시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해 인구 15만 5000명을 넘어섬에 ‘신도심 창조적 개발과 원도심 가치 보전’이라는 목표 아래 30만명 자족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발판을 차근차근 마련해 나가고 있다.

시는 특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42억원과 도시재생센터사업 1억원, 도시활력증진사업 30억원, 디자인시범거리조성사업 6억원, 새마을사업 10억원 등 총 89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해 농촌중심지 및 도시재생사업도 착실히 추진 중이다.

광양시는 특히 올해까지 총 110억원을 투입해 옥곡, 광영, 진상, 진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부지확보와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며, 광양읍과 옥곡은 공모사업이 심사 중으로 오는 3월께 농식품부의 평가만 남은 상태다.

광양시는 ‘농촌이 살아야 미래가 있다’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문화센터, 상가관광개신, 기반시설 등 농촌발전과 육성에 오는 2021년까지 38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시는 또 ‘성황근린공원’내에 2020년까지 총사업비 907억 원을 투자해 다목적체육관, 수영장, 야구장을 조성하고, ‘마동근린공원’은 2단계사업으로 32억원을 들여 둘레길은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총 120억원이 투자되는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중대동과 골약동이 확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펼치고 있다.

광양시는 쇠퇴한 광영동에 활력 불어넣는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에도 집중하

고 있다.

시는 ‘광영동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오는 2018년까지 60억원을 투입해 축구테마센터와 주차장을 조성하고, 2020년까지 60억원을 들여 문화창조공원과 주거정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광양읍 원도심 활성화와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남도읍식거리 조성, 동서천 연결사업 등도 적극 추진 중이다.

광양시는 옛 광양읍사무소를 거점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오는 2020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해 주거, 상가, 녹색, 역사재생 등 도심지 가치를 보존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서천변을 중심으로 조성되는 남도읍식거리에는 15억원을 들여 불고기투화거리, 차없는 거리로 조성한다.

광양시는 낙후마을을 생활여건 개선 위한 ‘새마을’ 조성에도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새마을을 조성사업은 안전, 위생 등이 취약한 낙후마을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광양읍 무선마을이 선정

돼 2018년까지 국도비 10억원 등 총 15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현재 옥룡면 남정마을에 대해 추가 공모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내달께 사업대상지가 결정된다.

시는 이 밖에도 서산공원에 41억원을 투자해 주차장, 장애인체험시설을 조성하고, 예구공원은 2019년까지 75억원을 들여 최고의 명품공원을 만들어 아울렛과 운전면허시험장 이용객에게 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2020까지 400억원을 투입, 폐쇄된 철도를 활용해 자연경관도로와 숲, 산책로 등 조성으로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정은태 광양시 도시과장은 “광양은 지형적으로 동서로 분리된 두 개의 중심축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하나로 통합된 도시기반을 토대로 시민이 최고의 복지를 누리고,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설 차례상 지역농특산물 애용합시다”



광양시는 “광양경제활성화운동본부와 함께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7~18일 이틀 동안 지역농·특산물 및 전통시장을 애용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관계 공무원과 지역 상공인단체, 사회단체, 새마을단체, 여성단체 등 200여 명이 참여해 17·18일 아를 캠페인을 전개했다. /광양=김경원기자 kkw@

도간부공무원 부인 모임 ‘목련회’ 월제어 기증



전남도 간부공무원 부인 모임인 목련회(회장 김숙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광양시노인전문요양원과 취약계층을 방문하고 위문했다.

목련회원들은 이번 방문에서 일일차집 등을 운영해 모은 수익금으로 월제어 3대와 생필품을 마련해 방문기관과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 5년간 하수도료 단계별 인상

현실화율 높여 재정 건전성 확보

광양시가 하수도 사용료를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매년 7월 인상한다.

광양시는 “최근 하수도사용조례를 일부 개정해 2016년 현재 미당 평균 406.8원

인 하수도 사용료를 올해 493.3원, 2018년 579.8원, 2019년 666.3원 2020년 752.8원 2021년 839.8원으로 5년에 걸쳐 단계별로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광양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2015년 결산기준 6.78%로 매우 낮아 공

업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하수처리 공공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운영비용만 겨우 보전하는 수준이다.

또 규모가 크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하수도사업은 사업비의 70%가 국비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요금 현실화율이 저조한 자치단체에 환경부가 패널티를 주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하수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광양시의 설명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매년 운영비용 93억원을 자체 재원으로 보전할 수 있게 되고 하수처리 시설 개량 등 투자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가절감 등 경영혁신을 통해 인상 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광양 시각장애인들 보금자리 생겼다

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개소

광양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센터장 김양임)는 “지난 17일 광양시 발원1길 7-8(중동)에서 광양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현복 광양시장을 비롯한 송재현 광양시의장, 도의원, 지역 장애인, 후원자, 봉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광양시각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시력 상실로 심리적 불안감과 일상생활

의 어려움이 있는 관내 시각장애인 732명의 자립 능력을 향상하고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127㎡ 규모에 사무실, 정보화교육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광양시지회(회장 조창영)가 4명의 직원을 배치해 운영한다.

주간센터 운영과 식주 생활 및 건강 위생 관리 교육, 보행, 점자, 정보화 교육 등 시각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광양=김경원기자 kkw@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생후 24개월까지 확대

광양시가 올해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기존 생후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확대해 추진한다. 그동안 영유아 기저귀 사용 평균 월령은 36개월인데 반해 기저귀는 12개월까지만 지원돼 지원 기간 확대요구가 이어졌다.

지원 확대로 생후 12개월 초·중·후 3개월 이하 영아(2015년 출생)는 재신청을 하면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12개월 이하 영아(2016년 출생)는 별도 신청 없이 24개월까지 자동 연장된다.

지원 대상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40%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며, 보건소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구입비용 월 6만 4000원, 조제분유 구입비용 월 8만 6000원으로 바우처카드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신청일 영아의 월령을 기준으로 24개월까지 남아있는 기간을 지원하며, 생후 60일(출생일 포함)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4개월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광양=김경원기자 kkw@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1인당 연간 10만원

광양시는 “농어촌 지역 여성농업인들의 문화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여성농업인에게 각종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과 농업인으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지원사업은 오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주소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광양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만 65세

미만 여성농업인으로,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3ha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간 10만원(보조 8만원, 자부담 2만원)의 행복바우처 카드를 지원받아 영화관, 미술실, 찜질방, 스포츠용품, 스포츠센터, 펜션·민박, 의료기기 및 용품, 안경점, 화장품점, 서점 등 문화·복지분야에 이용 할 수 있다.

/광양=김경원기자 kkw@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신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대산프리모

가발

메디컬센터 | 분양 및 임대

순창터미널 맞은편

1층: 약국, 제과점, 편의점, 기타

2층: 내과, 검진센터

3층: 안과, 피부·비뇨기과

4층: 치과, 이비인후과

5층: 정형외과, 한방의학과

6층: 물리치료실

대지면적 : 1,057㎡ 지상6층, 주차장 27대

1층: 101호 129.5㎡(구 39평), 102호 137.6㎡(구 41평)
103호 83.4㎡(구 25평), 104호 129.5㎡(구 39평)

2층: 201호 240㎡(구 72평), 202호 240㎡(구 72평)

3층 ~ 6층: 2층과 동일

주소 |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 213-5번지

(주)우원 (주)태우종합건설

(063) 653-7806

분양문의
010-4922-3317